



화순경찰, 농산물 절도 예방 전략회의 개최

화순경찰서는 지난 18일 경찰서 2층 '만연홀'에서 장승명 경찰서장 주재로 과장 및 팀장, 지역경찰관서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가을 행락철 및 농번기철 농산물 절도 등에 대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절도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또 112신고 분석을 통해 10월 치안수요를 예측하고 지역별 지역경찰관서의 주요 현안과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수확기 농산물 절도 등에 대비해 농산물 보관 창고 등 마을별 취약지 방법진단을 통해 치안 불안 요소를 파악하고 유관 기관과 연계해 문제 해결적 경찰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순경찰은 협력단체와 합동순찰 등 가시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범죄 발생 환경을 억제하고, 취약시간대 예방순찰과 검문검색도 강화하기로 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신수정 시의장 '광주대 초청 특강' 진행

광주시의회는 신수정 시의장이 지난 18일 광주대학교 호심관에서 '교양교과 열린인생론 특강'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신 의장은 이날 재학생 150명에게 '세상을 바꾸는 신의 한 수'라는 주제로 학창시절과 청년시절·정치입문 및 시의회 첫 여성 의장의 경험을 전했다.

이날 고 김근태 국회의원과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를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꼽은 신수정 의장은 "소통 잘하고 결단력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며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큰 뜻을 가진 청년들이 자치활동이나 정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미영 광주대 교육혁신처장은 "모교 선-후배 간 뜻깊은 소통의 장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신의 한 수가 되는 울림이 있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동신고 동문 민주화운동기념비제막식

광주 동신고총동창회(회장 조영중)는 지난 20일

동신고 운동장에서 민주화운동기념비 '동신인들, 민주화의 별이 되다' 제막식을 가졌다. 1980년 5월 계엄군에 맞서 투쟁하다 유명을 달리했거나, 많은 고초를 겪은 원순석(동신고 2회) 5·18기념재단 이사장을 비롯 동신고·동신여고·동신중 졸업생 28인과 12·12 반란군을 온몸으로 막다 전사한 정선업 병장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동신고총동창회 제공

뉴진스 "하니 우는 사진 100장... 달려가 안아줬다"

뉴진스 멤버 하니(사진)의 국정감사 출석건에 대해 하니와 같은 멤버 민지가 함께 소감을 밝혔다.

민지와 하니는 지난 18일 뉴진스 공식 팬 소통 플랫폼인 포닝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민지는 "스케줄이 있어 하니가 처음에 말하는 장면 밖에 못 봤다. 스케줄이 끝난 뒤 바로 찾아봤는데 하니가 우는 사진이 100장 뜨더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하니는 "어느 분이 찍으셨냐, 저와 잠시 얘기를"이라며 웃으면서 답했다.

앞서 지난 17일 뉴진스 멤버 다니엘도 하니의 국감 현장을 지켜봤다며 "국감 출석을 마친 후 울면서 들어온 하니를 달려가서 안아줬다"고 전했다.

이어 "하니 언니한테 많이 말했지만 너무 고생했다. 현장에 응원하러 간 버니즈(뉴진스 팬덤) 너무 감사하다. 버니즈 덕에 하니 언니도 더 힘이 났을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국감에 나선



하니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니는 지난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

사에 현직 아이돌 그룹 멤버 최초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당시 하니는 "헤어와 makeup이 끝나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소속 팀원 세 분 정도와 여성 매니저가 저를 지나쳐서 인사했다"며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왔다. 그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방시혁 의장으로 추정되는 하이브 '높으신 분'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은 점, 회사 내에서 느껴왔던 분위기 등을 거론하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광지혜 기자



광주 서구, 친절·안전 운전기사 시상식 개최

광주 서구는 21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여객자동차 친절·안전 운전기사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서구는 운전기사 14명과 택시회사 2곳을 친절·안전 운전기사로 선정해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3명(각 30만원) △장려 8명(각 20만원) △특별 4명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서구청장 상패를 수여했다. 이번 시상식은 서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했으며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교통이용 불편사항 예방을 위해 노력한 기사님을 선정해 시상하는 사업이다.

평가는 지난 3~9월까지 관할 마을버스 13대, 일반택시 1045대, 개인택시 876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승객 5591명이 평가에 참여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정덕기 씨는 "승객을 가족처럼 모신다는 마음으로 운행했을 뿐인데 승객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 같다"며 "승객들의 응원과 칭찬 덕분에 힘이 난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정상아 기자



광주 광산구, 제5기 구민감사관 20명 위촉

광주 광산구는 21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5기 광산구 구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5기 구민감사관은 광산구정에 관심이 많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시민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부터 2026년까지 2년간 광산구 자체 감사 참여, 생활 속 주민 불편 사항 제보,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건의 등 활동을 한다.

이날 위촉식이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제5기 구민감사관 운영 방향과 정령 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정령 광산을 위해 새롭게 위촉된 20명의 구민감사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며 "광산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주민의 구정 참여 기회 확대, 투명한 감사 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구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김상철 기자



진월동 7979봉사단, 취약계층 가정 봉사활동

광주 남구 진월동 7979봉사단(대표 조복순)은 지난 18일 취약 어르신 가정을 찾아가 세대대 설치와 집안을 정리 정돈하는 청소 등 봉사단원 10명이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진월동 7979봉사단은 취약계층 가정의 소소한 생활불편 사항을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봉사단체이다.

조복순 진월동 7979봉사단 대표는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상생이 어우러지는 진월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진월동 김문희 동장은 "본업에 바쁜 중에도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봉사단원들께 감사드리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을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전남대병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남대학교병원이 지난 16일 전남의대 덕재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21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국내 최초 발달장애 전문 연주단체인 '드림위드앙상블' 팀을 초청해 '편견이 눈을 감으면 가슴이 음악을 듣는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드림위드앙상블 이육주 이사장의 장애인 인식개선 강의를 시작으로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드림위드앙상블'의 클라리넷 연주로 이날 교육이 마무리됐다. 앞으로도 전남대병원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 신 병원장은 "직장 내 장애인은 물론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한소희, '52억 펜트하우스' 분양... 현빈·손예진 이웃

배우 한소희가 최근 52억원대 고급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소희는 지난 8월21일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아치울마을에 위치한 '아르카디아 시그니처' 전용면적 203㎡ 듀플렉스 펜트하우스를 52억4000만원에 분양받았다.

지난달 30일 잔금을 치렀으며 근처 당권 설정으로 봤을 때 약 10억원을 빌려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르카디아 시그니처는 지난해 5월 준공된 전원주택형 고급빌라로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다. 일반 6가구, 펜트



하우스 2가구로 구성됐으며 분양가가 타입에 따라 40억 후반대~50억 중반대로 형성돼 있다.

한소희가 분양받은 펜트하우스는 8가구 중 가장 면적이 넓은 복층형 구조로, 침실 4개와 욕실 3개, 다락, 루프탑 테라스 등으로 구성됐다. 아차산, 용마산뿐 아니라 한강 조망을 자랑한다.

아치울마을은 현빈 손예진 부부가 거주하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배우 오연서, 가수 박진영 등도 거주한다. 광지혜 기자

'송강호·박정민 주연' 배우 영화 '1승' 12월 개봉

배우 송강호·박정민 주연의 영화 '1승'이 오는 12월 개봉한다.

21일 아티스트스튜디오는 영화 '1승'의 첫 번째 포스터를 공개했다. (사진)

'1승'은 이겨본 적 없는 감독과 이길 생각이 없는 구단주, 이기는 법을 모르는 선수들이 모인 프로여자배구단이 1승을 위한 도전에 나서는 이야기다.

송강호가 배구단 핑크스톤의 새 감독 '김우진'을, 박정민이 1승을 하면 20억원을 쓴다고 선언한 구단주 '강정원'을, 장운주가 가늘고 긴 선수생활을 한 주장 '방수지'를 연기한다. 연출은 '삼식이 삼촌'을 만든 신연식 감독이 맡았다. 광지혜 기자



송강호 박정민 장운주 주연 영화 '1승' 12월 개봉한다. 광지혜 기자